

☆ 서사문학을 알게되면

독학 재수생을 위한

국어 단기간에 끝내기 반 (화목반) 모집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최대 4개월입니다. 4개월에 모두 1등급 달성입니다.

국어 3~5등급 학생들은 주 1회 수업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 2회 수업을 합니다. 화, 목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그리고 주 1회 사설 모의고사 봅니다.

혹시라도 주 1회가 필요한 학생은 금요일 모집합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리고 점심 먹고 모의고사 보고 갑니다.

제 학원은 대치동에 있습니다. 수업 듣고 그날 오후까지 공부하다 가셔도

됩니다. 질의 응답 비용은 음료수 한 잔값..

안녕하세요. [김현종 T입니다.]

오늘은 [② 번째] **소설 문학 분석**으로 다가갑니다.

이 소설문학 분석은 역시 1등급 학생들은 패스하시고
어설픈 2등급과 3-5등급 이하 친구들을 위한 것입니다.

늘 해도 해도 안 되는 국어 때문에 고민 있고 괴로운 친구는 이왕이면 비문학, 시문학
칼럼을 먼저 읽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순서대로 보고 오셔야 효과가 큼니다. !!

자 들어갑니다. 소설은 간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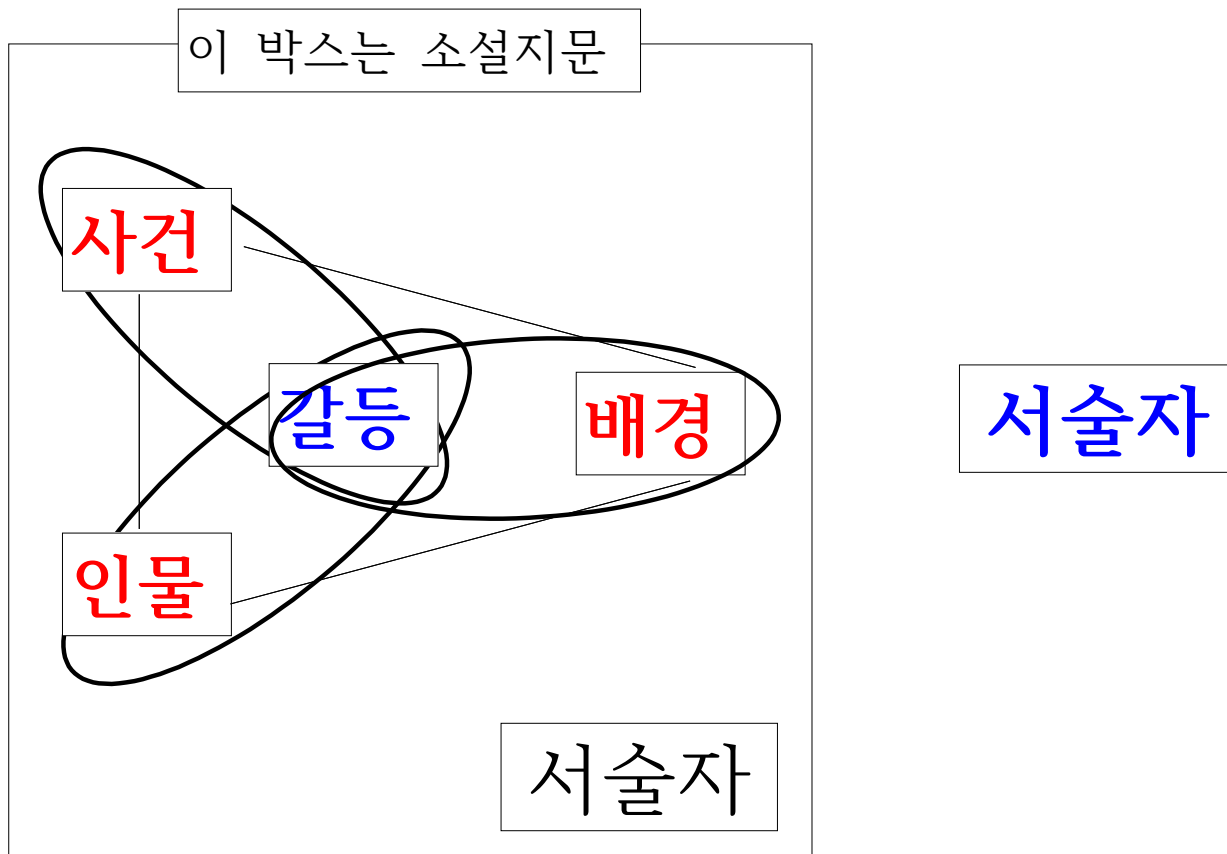
자 지난번 소설문학 칼럼에서

서사 = 사건을 서술한 글이고

= 사건은 반드시 인물이 일으키는 것이며

=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갈등이 있어야 하는데

=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인물과 배경이 있다...



- =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소설 지문 속에는 바로 저 위에 있는 그림의 내용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서술자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 = 거기다가 서술자의 시점만 더 공부하면 되는데 ... 그것은 생략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소설을 그냥 외우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더 눈뜨고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배경지식, 분석노트...이런 것에 의존하면서 소설 공부하는 친구들은 눈을 더 크게 뜨고 보세요....

4-5-6-7등급은 눈 아주 크게 뜨고 입 크게 벌리면서 큰 소리로 따라 외치면서 읽고 또 읽고 메모도 하세요..... 그래야 .. 그 어둠에서 벗어납니다 !!!

수업 버전으로 합니다.

- = 자, 애들아...이제 소설이다... 우선 철수야 ... 너 요즘 고민있니 ?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은데... 성적은 별로인거 같다..?...
- = 네 선생님... 3월 모의고사도 못 봤고...그래서 죽자살자... 매삼~~ 풀고 마달 3회독 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수만휘나 오르비에 비문학 인강, 문학 인강, 문법은 누구꺼..? 하면서 열심히

- 자료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투자다운 투자를 하렵니다.
- = 너의 문제가 누군가의 인장을 못 들어서라고 생각하니 ?... 허구헌 날 매삼~~, 마닿~~ 읽고 또 읽잖니?... 그런데도 부족하니 ?
 - = 부족하다기 보다... 아이들의 얘기를 듣고 좀 더 신중하게 인장을 선택하려는 거죠... 저 믿어주세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진짜로요....
 - = 그래? 그 소설 정리한 노트좀 가져와봐라...
 - = 냅.. 선생님 ... (상당히 자신있어 하는 표정으로 제시한다.)

현대소설 - 현진건, '무영탑'

작품해설 : 이 소설은 불국사의 석가탑 건립과 관련하여 전해 내려오는 백제의 석공 아사달과 그의 아내 아사녀의 비극적 사랑을 모티프로 창작된 작품이다. '무영탑'은 설화에 얽힌 석가탑의 다른 이름이다. 작가 현진건은 한 석공의 예술혼과 남녀 간의 사랑을 결합하여 석공 아사달이 고뇌와 번민을 이겨내고 신라 시대 최고의 작품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석가탑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현진건은 '유종'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일제 치하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이는 1930년대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현실에 대응하는 작가의 민족주의적 태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문으로 제시된 장면은 자신의 딸과 혼사를 진행하려는 금지의 뜻을 거절하려는 유종의 내면 의식과 아내인 아사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돌에 담아 새겨내는 작업을 하는 아사달의 내면 의식을 담고 있다.

[주제] 고뇌와 번민을 극복하고 이루어 낸 예술적 성취

= 무영탑을 정리했구나...!! 와우... 무지 고생했다.. 시간도 많이 걸렸을 거고....

= 네 선생님... 그 뒤페이지를 더 봐주세요... 요즘 저 바뀌었습니다.

갈래 : 역사소설, 설화소설

배경 : 시간적 - 신라 경덕왕 때
공간적 - 부여와 서라벌

시점 : 전지적 작가시점...

성격 : 설화적, 낭만적, 역사적, 불교적

구성 : 발단 =

전개 =

위기 =

절정 =

결말 =

등장인물 : 총 8명 정리...

줄거리 : ~~~~~~

무영탑에 나타나는 '한'의 승화.... ~~~~~~

= 선생님... 이렇게 하면 1등급 나오겠죠 ? ㅋㅋ

= 이렇게 한 작품 정리하는데 얼마 걸렸니 ?....

= 네... 한 한 시간 좀 더 걸린거 같네요...

= 펍 !!, 팍 !!, 푸우욱 !!.... 짹짹.... 아악..아악...아악....

그 뒤로 철수는 보이지 않았다....

(엄청난 과장이고 이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해가 가리라 생각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앞부분의 줄거리] 화랑도를 숭상하는 '유종'과 당나라를 숭상하는 '금지'는 내심 서로 못마땅해한다. 이런 가운데 '금지'는 아들 '금성'과 '유종'의 딸 '주만'과의 혼사를 진행하려 한다.

- = 애들이 소설을 만나면 뭘 찾는다 ?
- = 네~.... 인물을 찾고 갈등과 사건을 찾고 배경을 찾습니다.
- = 줄여서 얘기하란 말이다.... 뭐라고 ? (큰 소리로..)
- = 넵... 서사의 3요소를 찾아야 합니다. !!!! (발악을 하듯이..)

일단 등장인물은 유종과 금지가 나옵니다. 서로 못마땅합니다. 줄거리에서는 정보만을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두지 않습니다. 그냥 유종과 금지가 서로 브레이크를 거는 위치... 즉 뭘지는 몰라도 서로 갈등을 가지고 있나보다...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갈등의 대상인 금지가 혼사를 진행하려 한다...???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죠.... 브레이크가 아주 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경지식 다 필요없습니다. 인물, 갈등 찾았습니다. 바로 갑니다.

설령 금성이가 출중한 재주와 인물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유종은 이 혼인을 거절할밖에 없었으리라. 첫째로 금지는 당학과의 우두머리가 아니냐. 나라를 좀먹게 하는 그들의 소위만 생각해도 뼈가 저리거든 그런 가문에 내 딸을 들여보내다니 될 뻔이나 한 수작인가. 도대체 당학*이 무에 그리 좋은고. 그 나

1-2줄 : 유종이 금지를 거절합니다. (갈등고조)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일어났다기 보다 유종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생각입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 알겠지만 상대자 없이 마음에서 하는 생각... 즉 내면의식입니다.

2-5줄 : 계속 금지에 대해 거절... 즉 갈등이 고조됩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인물 그 다음에 갈등만 보세요...**

라의 바로 전 임금인 당 명황(唐明皇)만 하더라도 양귀비란 계집에게 미쳐서 정사를 다스리지 않은 탓에 필경 안록산(安祿山)의 난을 빚어 내어 오랑캐의 말굽 아래 그네들의 자랑하는 장안이 쑥밭을 이루고 천자란 빈 이름뿐, 축나라란 두메 속에 오륙 년을 갇히어 있지 않았는가. 금지가 당대 제일 문장이라고 추어올리는 이백이만 하더라도 제 임금이 성색에 빠져 헤어날 줄을 모르는 것을 죽음으로 간하지는 못할지언정 몇 잔 술에 감지덕지해서 그 요망한 계집을 칭찬하는 글을 지어 도리어 임금을 부추겼다 하니 우리네로는 꿈에라도 생각 밖이 아니냐. ㉠ 그네들의 한문이란 난신적자를 만들어 내기에 꼭 알맞은 것이거늘 이것을 좋아라고 배우려 들고 퍼뜨리려 드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니냐. 이 당학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우리나라에도 오래지 않아 큰 난이 일어날 것이요, 난이 일어난다면 누가 감당해 낼 자이라.

갈등 유발자인 금지가 속한 집단, 학파, 사상 들에 대해 부정적인 표현을 통해 유종의 내면의식이 계속 들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뿐입니다.

다른 거 읽지 마세요....제발 부탁드립니다. 서사는 서사답게 읽으면 됩니다. 출제자는 서사답게 출제할 거니까요... 부탁드립니다....

“한 나이나 젊었더면!”

유종은 이따금 시들어 가는 제 팔뚝의 살을 어루만지면서 한탄한다. 몇 해 전만 해도 자기와 뜻을 같이하는 이가 조정에 더러는 있었지만 어느 결엔지 하나씩 둘씩 없어지고 인제는 ㉠ 무 밑둥과 같이 동그랗게 자기 혼자만 남았다. 속으로는 그의 주의에 찬동하는 이가 없지도 않으려만 당학파의 세력에 밀리어 감히 발설을 못 하는지 모르리라. 지금이라도 젊은이 축 속으로 뛰어 들어가면 동지를 얼마든지 찾아낼는지 모르리라. 아직도 이 나라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은 다음에야 방방곡곡을 뒤져 찾으면 몇천 명 몇만 명의 화랑도를 닮는 이를 모을 수 있으리라. 그러나 아들이 없는 그는 젊은이와 접촉할 기

2-3줄 : 유종이 지금까지 살아온 얘기가 길면 길텐데... 아주 짧게 서술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요약적 사건제시입니다.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아주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유종이 그동안 일으킨 사건을 요약함...

3-끝줄 : 유종이라는 인물 외에 다른 인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유종의 머릿속 얘기만 나옵니다. 즉 계속 유종의 내면의식만이 나올 뿐입니다.

회조차 없었다. 이런 점에도 그는 아들이 없는 것이 원이 되고 한이 되었다. ㉡ 이 늙은 향도(香徒)에게 남은 오직 하나의 희망은 자기의 주의 주장에 공명하는 사윗감을 구하는 것이었다. 벌써 수년을 두고 ㉢ 그럴 만한 인물을 내심으로 구해 보았지만 그리 쉽사리 눈에 뜨이지 않았다. 고르면 고를수록 사람 구

하기란 하늘에 별따기보담 더 어려웠다. 유종은 기대고 있던 서안에서 쪽 미끄러지는 듯이 털요 바닥 위에 누웠다. 금지의 청혼을 그렇게 거절한 다음에는 하루바삐 사윗감을 구해야 된다. 금지로 하여금 다시 입을 열지 못 하도록 ㉔ 다른 데 정혼 을 해 놓아야 한다. 그러면 신라를 두 손으로 떠받들고 나아갈 인물이 누가 될 것인가. 삼한 통일 당년의 늠름하고 씩씩한 기풍(氣風)이 당학에 지질리고 문약(文弱)에 흐르는 이 나라를 바로잡을 인물이 누가 될 것인가.

이곳도 수년 동안 사위를 찾아다니던 유종의 얘기가 아주 간단하게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요약적 사건제시는 사건 전개 속도를 빠르게 해줍니다.

현실로 돌아와 바닥에 눕는 유종...그러면서 계속 내면의식만 나오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것 볼 거 없습니다.

지금까지 유종과 금지인데 금지는 갈등 대상으로만 나왔지...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중요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유종의 내면의식과 유종이 몇 년간 일으킨 일들과 사건들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만 챙겼다면 아주 굿이고 베스트입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유종'이 사위를 구하는 가운데, '주만'이 부여의 천민 석공 '아사달'을 사모하고 있음이 알려진다. 한편 '아사달'은 자신을 찾아온 아내 '아사녀'가 끝내 자신을 만나지 못하고 그림자못에서 죽은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못 둑에서 '아사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돌에 담아 새겨 내는 작업에 몰입한다.

중략이 나왔다는 것은 첫 번째 이야기 덩어리 (사건 1)가 끝났고 이 부분이 바로 두 번째 이야기 덩어리 (사건 2)이고 다음이 (사건 3)이 됩니다. 그러면 윗글에 대한 설명이라는 문제를 만든다면 보기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윗글은 여러개의 사건으로 구성된 서사이다...라고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 당연히 맞습니다.

내용에 빠지지 말고 다시 인물을 찾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

유종은 사라지고.... 주만 등장, 아사달 등장... 그 둘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니까 특별히 갈등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사달은 결혼 유부남... 아사녀란 아내가 있습니다. 그 혼한 삼각관계입니다.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내인 아사녀가 사건을 일으킵니다. 물에 빠져 죽은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 소설에서는 특별히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추측할 필요도 없고 있지도 않은 기억을 떠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인물 찾고 갈등 표시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느 결엔지 아사녀의 환영은 깜박 사라져 버렸다. 아까까지는 어렴풋이라도 짐작되던 그 흔적마저 놓치고 말았다. 아무리 눈을 닦고 돌 얼굴을 들여다보았으나 눈매까지는 그럴싸하게 드러났지마는 그 아래로는 캄캄한 밤빛이 쌓인 듯 아득할 뿐. 돌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골머리만 부질없이 헝헝 내어 돌리었다. 그러자 문득 그 돌 얼굴이 굵실 움직이는 듯하며 주만의 얼굴이 부시도록 선명하게 살아났다. 마치 어젯밤의 아사녀의 환영 모양으로.

아내를 돌에 새깁니다. 그런데 흔적을 놓칩니다. 지금 마주보고 있는

인물 없습니다. 그러면 아사달의 내면 의식입니다. 아내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는 아사달의 내면입니다.

그러다가 돌 얼굴에 주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여기까지.... 그냥 여기까지... 추측도 필요없고, 추론도 필요없습니다. 그저 여기까지....

그 눈동자는 띠룩띠룩 애원하듯 원망하듯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다.

[A] “이 돌에 나를 새겨 주세요. 네, 아사달님, 네, 마지막 청을 들어주세요.”

그 입술은 달싹달싹 속살거리는 것 같다.

아사달은 정을 쥔 채로 머리를 털고 눈을 감았다. 돌 위에 나타난 주만의 모양은 그의 감은 눈시울 속으로 기어들어 오고야 말았다. 이 몇 달 동안 그와 지내던 가지가지 정경이 그림등 모양으로 어른어른 지나간다. 초과일 탐돌이할 때 맨 처음으로

아내를 새기려는데 주만이 나타나서 자기를 새겨달라고 애원합니다. 물론 직접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내면의식에서 나타난 겁니다.

여기서 내적 갈등이 나옵니다. 아내의 얼굴과 주만의 얼굴.... 계속 이 두 얼굴이 아사달의 갈등을 고조시킬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사건 터지겠죠.... 누구 얼굴 하나는 버려야 합니다.

마주치던 광경, 기절했다가 정신이 돌아날 제 코에 풍기던 야릇한 향기, 우리가 울고 악수가 쏟아질 적 불꽃을 날리는 듯한 그 뜨거운 입김들..... 아사달은 고개를 또 한 번 흔들었다. 그제야 저 멀리 돈짜만 한 아사녀의 초라한 자태가 아른거린다. 주만의 모양을 구름을 헤치고 뚱뚱 떠오르는 햇발과 같다 하면,

주만과 있었던 황홀한 모습속에서 괴로워 합니다. = 거의 3류영화
고개 흔들고 떨칩니다. 그때 동전만한 아내 모습 나타납니다. 주만은
다 좋은 거고... 아내는 초라하고...

[B] 물동이를 이고 치마꼬리에 그 빨간 손을 씻으며 배시
시 웃는 모양, 이별하던 날 밤 그린 듯이 도사리고 남편
을 기다리던 앓음앓음, 일부러 자는 척하던 그 가늘게 떨
던 눈시울, 버드나무 그늘에서 숨기던 눈물들.....

아내와의 추억을 떠올립니다. 이거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갑시다.

아사달의 머리는 점점 어지러워졌다. 아사녀와 주만의 환영도
흔들린다. 휘슬레를 돌리듯 핑핑 돌다가 소용돌이치는 물결 속에
서 조각조각 부서지는 달그림자가 이내 한 곳으로 합하듯이, 두
환영은 마침내 하나로 어우러지고 말았다. 아사달의 캄캄하던 머
릿속도 갑자기 환하게 밝아졌다. 하나로 녹아들어 버린 아사녀와
주만의 두 얼굴은 다시금 거룩한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하였다.

두 여자 환영속에서 마구 괴로워합니다. = 흔히 보는 3류영화...
그러다 소용돌이 치고 사라지면서 두 여자의 모습이 하나가 됩니다.
머리 환해집니다. === 갈등이 끝나고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여
자의 모습이 거룩한 부처님으로 변했습니다. ㅋㅋㅋ 두 여자 모두 취
했네요.... 누구 하나 버릴 줄 알았더니....ㅋㅋㅋ

아사달은 눈을 번쩍 떴다. 설레던 가슴이 가을 물같이 맑아 지자, 그 돌 얼굴은 세 번째 제 원불(願佛)로 변하였다. 선도산으로 뉘엿뉘엿 기우는 햇발이 그 부드럽고 찬란한 광선을 던질 제 못물은 수멸수멸 금빛 춤을 추는데 흥에 겨운 마치와 정 소리가 자지러지게 일어나 저녁나절의 고요한 못 독을 울리었다.

새벽만 하여 한가위 밝은 달이 홀로 정 자리가 새로운 돌부처를 비칠 제 정 소리가 그치자 은물결이 잠깐 헤쳐지고 풍하는 소리가 부근의 적막을 한순간 깨트렸다.

- 현진건, 「무영탑」 -

아사달은 고민 다 끝냈습니다. 갈등 다 끝났고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햇살도 좋은데 흥도 나고 열심히 부처님 새기고...그러다가 새벽에 달이 부처를 비칠 때 풍덩하고 뭔가가 빠지나 봅니다....

여기까지 주어진 시간 2분 30초에서 3분 05초 내로 분석해야 하는데 선생님은 현진건이 누군지 모릅니다. 무영탑에 대한 배경지식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것은 오로지 서사의 3요소와 서술자가 그것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방법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적용만 했을 뿐입니다.

선생님이 이해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해한 것으로 바로 문제로 들어가려 합니다. 풀릴지 안 풀릴지 모르겠지만 실제 수능에서는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더 머물러봐야 시간낭비이고 더 아는 것도 없는 데 계속 있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자 아는 것은 별로 없지만 이제 문제로 들어갑니다.

3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역시 윗글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문학에서 어떻게 푸는 지 설명 드렸죠 ?... 설명하러 전문가 5명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얘기를 듣고 있다가 OX만 해주면 됩니다. 그럴려면 끊어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하나 틀렸는지 맞았는지 확인이 가능하니까요....그리고 기본적인 서사문학에 대한 용어 몇 개 정리해 놓고 있으면 어떤 소설 문제라도 다 풀 수 있습니다.

==== 윗글은 서사문학이죠... 그래서 보기 5개가 모두 서사와 관련된 것들이 문제로 나올 겁니다. 인물, 사건, 배경, 갈등, 서술자...이렇게 종류별 또는 연합으로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① 인물의 의식이 내적 갈등에 초점을 둔 서술 방식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 인물의 의식이 내적 갈등에 초점을 둔 서술 방식을 통해 //

= 여기까지 OX하는 겁니다. 인물의 내면의식 나왔죠 ?...그리고 내적 갈등도 했죠 ?...서술자는 그것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죠 ?... 역시 0입니다.

= ~~~~ 드러나고 있다. // 인물의 의식을 서술자가 그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 맞죠 ?... 바로 답입니다.

= 서사의 3요소 중에서 인물과 서술자에 관한 설명입니다.

②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특정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희화화하고 있다.

- =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 윗글들을 보세요. 대화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설령 있다고 해도 현실적인 대화가 아니라 상상이거나 추억에서 나오는 대화 뿐입니다. 일단은 대화가 있으니까 O입니다.
- = 특정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희화화하고 있다 // ㅋㅋ X입니다.

③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신분이 낮은 인물의 발언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 =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 미래 얘기는 코빼기도 없습니다. 모두 죽는 얘기인데 무슨 낙관 ?
- = 신분이 낮은 인물의 발언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 신분 낮은 인물이 누구인가요 ? ㅋㅋㅋ

④ 물신주의에 빠진 세태가 탈속적 세계를 지향하는 인물의 비판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 = 물신주의에 빠진 세태가 // 물질이 최고다라는 세태가 어디 ?
- = 탈속적 세계를 지향하는 인물의 비판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 그냥 갑시다... 여러분...ㅋㅋ

⑤ 권력과 사랑을 동시에 쟁취하여 신분 상승을 도모하는 소외된 개인의 욕망이 구체적인 일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 = 권력과 사랑을 동시에 쟁취?...그런 장면 있나요?...나머지 보나마나

죠...

이렇게 설명 문제는 끊어 읽으면서 OX 따
지면 무조건 다 맞습니다...명심하세요....

3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신라를 ‘문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유종’이 인식하고 있는 대상이다.
- ② ㉡은 ‘유종’의 외로운 처지를 보여 주는 비유이다.
- ③ ㉢은 현재의 주류적 ‘기풍’을 거부하는 ‘유종’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 ④ ㉣은 ‘유종’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원하는 대상이다.
- ⑤ ㉤은 ‘유종’이 자신과 대립하는 세력과의 연대를 위한 방도이다.

이 문제도 역시 서사문학 문제 답게 1번부터 5번까지...
모두 유종이라는 인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특정 인물 하나 뽑아서 항상 소설에서 문제내는 거
여러분도 다 알고 있죠 ?

그래서 서사의 3요소... 3요소...하는 겁니다.... 쓸데없이
문제유형이 어떠니 저찌니....하는 얘기들.... 다 헛다리입니다.
이거 답 5번입니다. 그냥 가도 되죠 ?

40. [A], [B]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는 떠나는 ‘아사달’에 대한 ‘주만’의 걱정이 나타나 있다.
- ② [B]에는 ‘아사달’과 ‘아사녀’의 이별의 원인이 제시되어 있다.
- ③ [B]에는 훗날의 만남에 대한 ‘아사달’과 ‘아사녀’의 기약이 나타나 있다.
- ④ [A]와 [B] 모두에서, 이별한 대상인 ‘주만’과 ‘아사녀’를 잊고자 하는 ‘아사달’의 의지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 ⑤ [A]의 ‘주만’의 모습과 [B]의 ‘아사녀’의 모습은 모두 ‘아사달’이 그들의 환영을 보는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 이 문제도 역시 인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대화와 서술로 이루어진 서사문학을 제대로 읽었다면 특정 부분에서의 인물에 대한 다양한 질문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 답 5번... 쉬우니까 지나갑니다....

4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3점짜리 모두 다 맞는 방법 알려드렸을 겁니다.

인강에서도 다 말해드렸고, 보여줬고, 설명까지 했는데도 아직도 8개의 3점을 못 맞추면 어떡하니...? 5-6등급이 바로 3등급 되는 결정적 한방인데.....

이 문제는 아래처럼 풀면 됩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조건 **목적어** **요구사항**

보기에서 ① 목적어...../ 조건을 바탕으로 감상..... 결국 OX

—<보 기>—

『무영탑』은 작가 현진건의 예술관, 민족주의적 태도, 현실 인식 등을 드러낸 작품이다. 이 작품은 석가탑 조성에 얽힌 인물들의 이야기를 펼쳐 내면서 숭고한 예술적 성취의 과정을 잘 보여 준다. 이러한 예술적 성취는 석공 아사달이 자신의 고뇌를 극복하며 예술품을 만들어 가는 과정, 특히 사랑과 예술혼이 하나로 융합되어 신앙의 궁극이라는 새로운 경지에 이르는 데에서 잘 드러난다.

- ① ‘유종’이 ‘이백’을 칭송하는 ‘금지’를 비판하고 화랑도 사윗감을 구하려 하는 장면에서, 작가의 민족주의적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② ‘아사달’이 ‘아사녀’의 환영을 돌에 담아내려고 하는 장면에서, 주인공의 사랑과 예술혼을 융합해 내려는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군.

- ③ ‘금지’와 같은 ‘당학파’를 ‘나라를 좀먹게 하는’ 집단으로 간주하는 장면에서, 외세를 추종하는 현실을 비판하려는 작가의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④ ‘아사녀’와 ‘주만’의 환영이 하나로 어우러져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한 장면에서, 신앙의 세계로 나아갈 수 없어 절망하는 인물의 내면이 나타나 있군.
- ⑤ ‘아사달’이 ‘아사녀’를 ‘별만 한 광채’로, ‘주만’을 ‘떠오르는 햇발’로 떠올리며 갈등하는 장면에서, 새로운 예술적 경지에 이르는 과정에서 빚어진 ‘아사달’의 고뇌가 드러나 있군.

답은 4번입니다.

①

= ‘유종’이 ‘이백’을 칭송하는 ‘금지’를 비판하고 화랑도 사윗감을 구하려 하는 장면에서,//// 이 부분까지가 목적어인 윗글 부분입니다. 당연히 본문에 그런 장면이 있으니까 ... 0입니다.

= /// ~~~ 작가의 민족주의적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이 부분은 위 보기 박스에 첫줄에 나오는 내용으로 (조건)으로 감상한 거 맞습니다. 따라서 0입니다.

④

= ‘아사녀’와 ‘주만’의 환영이 하나로 어우러져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한 장면에서,/// 이 부분까지가 목적어인 윗글 부분입니다. 당연히 본문에 그런 장면이 있으니까 ... 0입니다.

= ~~~~ // 신앙의 세계로 나아갈 수 없어 절망하는 인물의 내면이 나타나 있군. /// 아사달은 신앙의 세계로 나아갈 수 없어서 절망하는 모습이 보기 박스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단어는 나와도 절망하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없는 것

을 가지고 감상할 수는 없습니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이 문제도 조금 전 문제와 100% 똑 같은 문제입니다.

윗글이 목적어로 주어부로 나가고 (보기)가 조건으로 내려와서 윗글에 나타난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OX문제입니다.

— <보 기> —

아사달과 아사녀의 이야기는 조선 후기의 설화(『서석가담』) 뿐만 아니라, 현진건의 기행문(『고도 순례 경주』, 1929)과 그의 소설(『무영담』, 1939)에도 나타난다.

[자료 1]

불국사 창건 시 당나라에서 온 석공에게 아사녀라는 여인이 있었다. 아사녀가 갑자기 와서 석공과 만나기를 요구하였으나, 큰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아사녀가 비루한 몸이라는 이유로 허락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아사녀가 남서쪽 십리쯤에 있는 연못을 내려다보면 석공이 보일 듯하여, 가서 살펴보니 정말 석공의 모습이 비쳤다. 그러나 탐의 그림자는 비치지 않았다. 그래서 무영담이라 불렀다.

- 『서석가담』 -

[자료 2]

제 환상에 떠오른 사랑하는 아내의 모양은 다시금 거룩한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하였다. 그는 제 예술로 죽은 아내를 살리고 아울러 부처님에게까지 천도(薦度)하려 한 것이다. 이 조각이 완성되면서 자기 역시 못 가운데 몸을 던져 아내의 뒤를 따랐다. 불국사 남서방에 영지(影池)란 못이 있으니 여기가 곧 아사녀와 당나라 석공이 빠져 죽은 데다.

- 현진건, 『고도 순례 경주』 -

답은 5번입니다.

⑤

- = 윗글의 '새로운 돌부처' 형상에 석공의 얼굴이 새겨진 것은 ///
 - = 여기까지가 목적이인 윗글입니다. 본문에 나온 다는 것이죠... 그런데 윗글을 바보같이 읽지 않는 한... 새로운 돌부처의 모습은 두 여인의 모습이란 것인데...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 석공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고 했죠 ?....
 - = 뒤에 내용을 살필 필요도 없이 벌써 앞부분에서 X가 나왔습니다. 뒤는 볼 필요도 없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에무우사의 어떤 강사는 정답률 52% 어찌고 저찌고.... 현진건의 다른 작품과 비교해 가면서 어찌 그리 설명하는지...(제 몇 안되는 수강생이 입에 거품물고 와서 보여줬기 때문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장은 최소한 저렇게 찍지는 말자...하고 다짐한 문제입니다.)
 - = 우리 학생들은 그냥 딱 끊어 읽습니다. 그래서 OX하면 모두 풀립니다.
 - = ~~~~~ // 윗글이 [자료 1]과 [자료 2]의 서사 모티프를 이어받은 것으로 볼 수 있군. // 아사녀와 연관되어야 할 부분에 석공이 나왔으니 이 서사 모티브를 가져왔다고 볼 수 없는 거죠....
- 나머지는 생략할게요....

자, 여러분 배경지식으로 문제 풀었나요 ?
무영탑이 어려웠다고 했던 친구들....무엇

이 문제였을까요 ?

그냥 서사의 3요소로 문제 풀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다른 얘기 한 거 있는지 모르겠지만 100% 처음 보는 지문이라도 이렇게 풀면 다 맞습니다.

제 수강생 모두 이렇게 해서 100점 맞고 1등급 맞습니다.

다음에는 고전소설 분석해 볼게요...

그것도 서사의 3요소로 썬판 처음 보는 고전 소설이라도 그냥 풀립니다. ㅋㅋㅋ